

장래의 공중육상 이동통신 기술

특집 편집기



안 승 춘 본부장

한국통신
초고속통신망추진본부

선진국들은 정보화사회의 세계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각국의 정보화 고속도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정상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구도는 독점에서 과점, 복점 체제로의 변화가 진행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시장이 변화하고 기술이 진보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2천년 대부분은 영상서비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음성과 데이터, 영상 등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ITU-R SG 8/1에서는 국제적인 표준 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9月호에서는 장래의 육상이동통신(FPLMTS)기술에 관한 특집호로 마련하였습니다.

세계가 단일규격으로 장래의 육상이동통신서비스를 추진하는 배경,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이용자만의 인터페이스인 무선기능 및 공통성 권고 분석과 함께 위성통신과 지상통신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호 원고를 위해 지난 여름을 땀과 불면의 밤으로 보내셨을 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넉넉한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